

호남 명산 영광 불갑산, 관광객 붐비는 전국 명산으로

불갑산도립공원 후속 조치...불갑사관광지 확장 박차

전국 최대 규모 상사화 군락지와 한국 호랑이 실물 박제로 유명한 영광 불갑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불갑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담은 공원계획이 최근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불갑산 일대 불갑사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을 앞둔 불갑산도립공원의 미래 가치와 조성 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 최대 상사화 군락지·천연기념물 참식나무 등 보존가치 높아
등산로 정비·주차장 확충 등 환경 개선...관광객 300만 유치 목표

◇100대 명산에 이름 올리고 전남 일곱 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

해발 516m인 불갑산은 호남지역 영산기맥의 중심부에 위치한 명산(名山)으로 지난 2019년 1월 일곱 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원래 산세의 수려함이 마치 산들의 어머니 같아 '모악산'이라고 불렸으나, 백제시대에 불교가 처음 전해지며 불갑사가 지어진 후 산 이름도 불갑산으로 알려지게 됐다.

불갑산은 산세가 아늑하고 수림이 울창하며 봄철의 벚꽃, 가을철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국내 최대 상사화 꽃무릇 군락지, 천연기념물 제112호 참식나무 자생복합한계지, 환경부 2급 멸종위기 보호식물 진노랑 상사화 군락지의 생태자원과 보물 제830호 불갑사 대웅전 등의 문화자원이 어우러져 있다.

특히 전남 최북서 지역에 위치한 산림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존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 참식나무, 상사화 등 생태적 우수성을 알리고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면서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불갑산을 대표하는 것은 뽕나무나무도 상사화군락지이다. 군화인 상사화는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분홍상사화, 진노랑상사화, 붉노랑상사화와 석산(꽃무릇) 등을 모두 포함한다. 꽃무릇이라 불리는 붉은색의 석산 종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매년 9월 중순이 되면 약 300만㎡ 규모의 우리나라

최대 꽃무릇 군락지가 불갑산을 온통 붉게 수놓게 되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상사화는 꽃이 필 때 잎이 없고 잎이 자랄 때 꽃이 피지 않아 서로 볼 수 없어 이를 수 없는 사랑이란 꽃말을 가졌지만 사실은 정열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을 주제로 느느는 상사화 군락지와 함께 매년 우리나라의 대표 가을꽃 축제인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열린다.

◇보존과 개발 조화를 이룬 도립공원...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 박차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영광군은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도립공원계획에 따라 등산로 정비, 암자 연결 숲길 조성, 상사화 등 야생식물 보존에 중점을 맞춰 불갑산 도립공원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올해는 3억원을 투입해 불갑산이 시작하는 곳에 위치한 저수지와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정비한다.

군은 불갑산 일대 불갑사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불갑산상사화축제, 불갑산 등산객, 불교문화체험 등으로 매년 10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협소하고 이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는 부지 정비, 교량 2개소 설치, 상·하수도관 매설 등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기존 상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또 불갑사 관광지와 불갑저수지까지 '불갑



불갑산은 약 300만㎡ 규모의 우리나라 최대 꽃무릇 군락지로 매년 9월 중순이 되면 산을 온통 붉게 수 놓아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영광군 제공>

테마공원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불갑저수지 관광지원화사업'과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꽃 섬터와 마을 장터, 산책로, 조경 및 녹지공간 등을 새로 조성해 다양한 휴양문화시설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상가 이전·신축을 통해 특색 있는 상가를 조성하는 등 경관개선 사업을 거쳐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새롭게 다가가는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불갑사관광지 주변 아름다운 수변 풍광이 있는 불갑저수지 및 테마공원 등과의 연계성을 위해 불갑사관광지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을 잇는 주요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을 위한 도로를 우선 설치해 관광객들이 PM을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수변 경관을 직접 보고 걸을 수 있도록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수용태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2024년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갑산의 풍부한 자연생태와 우수한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두의 산으로 만들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립공원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인도승 마라난타 백제 불교 전한 곳

천년고찰 불갑사

불갑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불갑사는 유서깊은 고찰로 백제 집류왕(384년)때 법성면 법성포를 통해 최초로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인도승 마라난타 존자가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

제일 처음 지은 불법도량이라는 뜻에서 불교의 불(佛)자에 갑(甲)자를 넣어 불갑사(佛甲寺)라고 명명했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전소했으나 중창을 통해 다시 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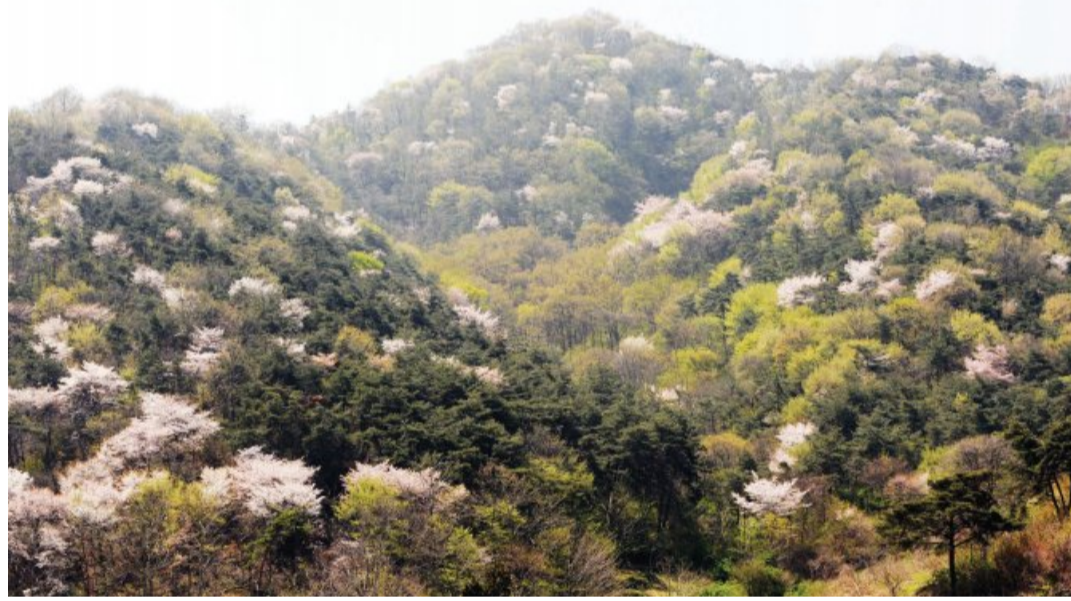
현재 영광군 9경 중 하나이며 보물 제380호 대웅전과 제1377호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비롯해 팔상전, 칠성각, 만세루, 범종루, 천왕문 등 귀중한 문화재들을 품고 있다.

불갑사는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해 외국인들을 포함한 체험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아울러 사찰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제112호 참식나무 자생 복합한계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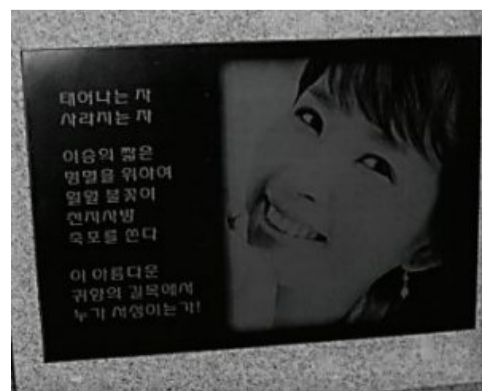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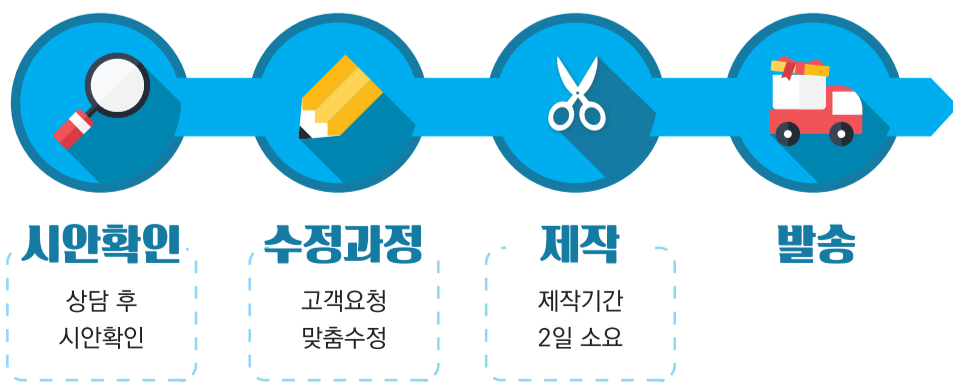


전설에 의하면 불갑사의 정운스님이 인도 유학 중 인도 공주와 사랑하게 됐지만 국왕의 반대로 정운스님은 인도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이 별을 슬퍼한 공주는 두 사람이 만나던 곳의 나무 열매를 따서 주었고, 스님이 그 열매를 불갑사에 심은 것이 참식나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 불갑사와 인도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며 불갑산상사화축제의 핵심 주제인 인도 공주와 정운스님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로 연결된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불갑산은 산세가 아늑하고 수림이 울창하며 봄철 산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천년이 지나도 변치않는 '오석(烏石)' 에 사진을 새기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 <주 사용처>
문배, 준공성, 식수석, 묘지용 와비, 남골당 수목장 표시석, 인테리어 돌액자
- 주요제작사이즈 -
1. 100×200×20
 2. 200×200×20
 3. 300×200×50
 4. 400×300×20 (가로×세로×높이)
- 기타사이즈는 문의